

창고에서 잠자는 광주 구청 공공자전거

4개 구청 보유 221대 중 170대 고장... 대여횟수도 미미 관리 어렵다며 대여소 패쇄도... 서구 163대 배치와 대조

최근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용 인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광주지역 일부 자치구가 공공자전거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각 자치구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자전거의 특성상 분실, 고장 등으로 인해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공공자전거를 골칫덩이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각 자치구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배치해 운영중인 공공자전거는 동구 13대,

남구 7대, 북구 7대, 광산구 24대 등 51대에 불과하다.

4개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는 모두 221대로 이중 실제 이용 가능한 공공자전거 51대를 제외하면 170대가 고장이나 폐기처분 대상으로 분류돼 창고에 보관돼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서구는 163대를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배치해 시민들에게 대여해주고 있다.

같은 기간 대여현황도 서구가 331회에 이르는 반면 남구와 북구는 각각 18회와

56회에 그쳤다. 동구와 광산구도 각각 301회, 322회로 서구의 10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공공자전거가 부족하고 대여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동구·남구·북구·광산구의 '자전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북구의 경우 지난 2012년 공공자전거 대부분이 노후화됐고,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120여대를 폐기처분하다시피 각 주민센터 등에 배분했다. 이후 지난 2년간은 아예 공공자전거를 운영하지 않다가 올해 겨우 7대를 구매했다.

동구는 공공자전거 정책을 홍보하면서 이용을 장려하기보다 되레 자전거 대여소

의 이용실적이 없고 고장이 난 자전거가 많다는 이유로 산수동, 동명동 등 7곳의 대여소를 최근 없앴다. 광산구와 남구도 각각 5곳과 1곳의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폐지한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 자치구가 공공자전거 구매, 고장 수리 예산을 광주시의 교부금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자전거 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차지에 반납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 등이 갖춰져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kiki@kwangju.co.kr

농민·교육·종교계 집회 시위 잇따라

쌀값 폭락, 역사 교과서 국정화, 비정규직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농·농민·교육·종교계 등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는 24일 나주 혁신도시 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앞에서 집회를 하고 800kg 대형포장 벼 13포대를 쌓는 등 아적시위를 벌였다.

여수진보연대는 이날 오후 여수시청 민원실 앞에서 '11·14 과잉진압 경찰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보성 농민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했다.

강진시민모임도 이날 오후 강진군 강

진읍에서 '실종된 민주주의 찾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과 '11·14 민주총궐기대회' 과잉진압을 비판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백남기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가폭력 방지와 인간성 회복을 위한 단식 9일 기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평위는 단식기도와 더불어 신도들과 시민들이 참석하는 촛불문화제도 개최한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22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광주시 북구 새누리당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김경민기자kiki@kwangju.co.kr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출간... 후안무치 '책도둑 교수들'

50개대학 200여명 적발... 광주·전남도 포함 파문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목인한 대학교수 20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다음 달 중 이들을 전부 기소할 방침이어서 사상 초유의 무더기 교수 퇴출사태가 예상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교수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서도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일명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전국 50여개 대학교수 200여 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교수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새 책인 것처럼 발간해준 3개 출판사 임직원 4명도 입건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에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썼다.

입건된 교수들이 속한 대학은 수도권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50여 곳에 이른다. 국·공립 대학과 서울의 유명 사립대도 있다. 저작권을 위반한 교수 가운데는

스타 강사와 각종 학회장도 포함됐다.

광주·전남지역 대학 교수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 "광주·전남지역 교수들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광주·전남 교수들이 포함될 경우 지역에서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 강단에서의 퇴출이 불가피하다. 각 대학은 논문 표절 교수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3개 검사실과 수사과 등을 동원해 교수 200여명의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입증한 만큼 기소 기준을 정한 뒤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표지갈이 범행이 대부분 출판사가 교수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형사처벌을 받는 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눈 오기 전에...제설장비 점검 26일 올 겨울 첫눈이 예보된 가운데 광주 북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24일 북구 용봉동 제설차재보관소 앞에서 제설차량 살포기 시험가동 등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00억대 중국산 오징어다리 밀수입 4명 적발

광양세관은 24일 중국산 '조미 오징어다리' 수백t을 '미가공 오징어다리'인 것처럼 속여 관세 13억여원을 포함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업자 S(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세사 사무원 P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S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0여차례에 걸쳐 중국산 '조미 오징어다리' 732t(시가 109억여원)을 수입해 '미가공 오징어다리'인 것처럼 속여 수입식품 검사도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해 관세와 부가세 등 13억원

을 포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S씨는 조미된 오징어다리는 관세율이 20%, 부가가치세를 10%인 데 반해 미가공 오징어다리는 관세율이 10%,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씨 등은 광양의 관세사 사무소 사무원 P씨에게 수입품이 미가공 오징어다리인 것처럼 무역서류를 변조하도록 해서 세관과 수입식품검사소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박영진기자 pyi4079@

무등산공원사무소 직원 산악구조 훈련 중 암벽 추락 사망

산악 안전을 위해 특별 채용된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 직원 1명 산악 구조 훈련 중 암벽에서 떨어져 숨졌다.

24일 오후 1시50분께 광주 무등산 새인봉 암벽에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구조대 직원 배모(45)씨가 30m 높이에서 추락했다. 배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3시40분께 결국 숨졌다.

배씨는 이날 오전부터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광주시소방안전본부 산악구조대가 합동으로 진행한 산악구조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배씨는 암벽 상단 부분에서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밧줄을 몸에 묶고 암벽 아래로 하강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광주산악구조대장을 맡는 등 산악전문가로서 활동을 인정받아 올해 초 안전요원으로 특별 채용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헤어선 여친 집 침입 명품 40여점 가위로 자르고 화풀이

○...헤어선 여친 집에 침입해 옷과 명품가방 40여점을 가위로 자르는 등 화풀이한 20대 만취 남성 이 경찰서로 향했다.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4)씨는 지난 15일 새벽 4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이모(여·20)씨가 살고 있는 원룸에 침입해 300만원 상당의 핸드백과 청바지, 치마를 가위로 잘라 훼손하는가 하면 선글라스, 향수 등 50

만원여치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CCTV 영상만 보면 (용의자가) 성격 차이로 두 달간 시귀다 최근 헤어선 남자친구 같다"는 진술에 따라 용의자를 추적해 김씨를 붙잡았는데, 경찰에서 그는 "여자친구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차된 차량을 밟고 창문을 통해 넘어들어가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며 허술수술.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성과급 재분배 갈등 서구 공무원노조지부장 중징계

성과상여금(성과급) 재분배 문제로 구청장과 갈등을 빚은 광주시 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에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서구 공무원노조 전모 지부장에 대해 징계 1개월을, 부지부장과 사무국장은 각각 감봉 1개월의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노조 운영위원 3명은 불문경고를 받았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성과급 재분배를 두고 구청장과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피켓시위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 3명은 중징계, 간부 3명은 경징계를 광주시에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조만간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싸고 좋은 물건, 추천합니다!

주인직거래

H.010-3605-5000

곡성, 전원주택

- 곡성군 입면 송전리 233-6번지
- 대지 72평, 건물 28평, 시멘트 벽돌조
- 1층 단독주택, 2012년 준공, 텃밭있음
- 광주에서 30분/ 금호타이어에서 1분
- 매매-6500만원

화순, 전원주택부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 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12월말 완공)
- 매매-1억6400만원(조정가)

수기동, 오피스텔

- 19층, 29평, 광주천 방향
- 전체수리, 사무실전용, 대형주차장
- 매매-5500만원(일시불조건)
- 보5백만원에 월 30만원 임대가능
- 용자 3천만원 가능

남구 송하동,임야

- 광주 남구 송하동 산 77번지
- 2026평, 자연림으로 이용중
-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
- 시세/감정가 - 7370만원
- 급매-4500만원(조정가)

남구, 신축빌라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20평, 5층 중 5층, 2013년 신축
- 엘리베이터, 베란다(3평), 즉시입주가
- 시세/감정가-1억3000만원
- 매매-1억1000만원

나주, 임야(배발)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 12-4
- 89평, 간선도로에 접함
- 세지 북초등학교 인근
- 현재 배발으로 이용

투
자
자
모
심

▶공동투자 가능!
연 20% 수익보장

▶돈 빌려주실 분!
연 10% 이상 지급

▶비밀 배우실 분!
교육비 등 1200만원

(주)오 천 경 매
H. 010-3605-5000